

‘증오와 갈등’의 땅 민다나오에 희망을...

이원주 회장 (JTS 필리핀 대표·前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회장)



이원주 대표는 ... 1954년 경남 고성서 태어났으며, 고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 부산 조광무역 필리핀 법인 직원으로 필리핀에 첫 발을 디뎠으며, 1987년에는 '케이 리 패션' (Kay Lee Fashion)을 설립해 미국의 류회사인 바나나리퍼블릭과 폴로 등에 납품하며 필리핀서 손꼽히는 의류 생산업체를 일구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한인무역협회 필리핀 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법륜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JTS 지부인 'JTS민다나오'를 설립해 민다나오섬에 현재까지 학교 46곳의 건립, 운영을 지원 했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JTS필리핀 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에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돼 2년 임기를 마쳤다. 2011년에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기존 '케이 리 패션'을 정리하고 최근에 새로 설립한 의류회사인 'LHK creation' 대표로 있다.

필리핀서 분쟁지역으로 뉴스 도마위에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 바로 민다나오다. 수도인 마닐라서 비행기로 1시간 20분 걸리는 민다나오는 남한보다 조금 넓은 면적에 2천만이 사는 필리핀 최남단의 섬이다. 원주민들 낙원이던 민다나오에는 14세기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서 건너온 무슬림 5백여 만명이 산다.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등장한 이후, 미국 식민지(1899~1945)시대에는 무슬림을 궁지에 몰면서 무슬림 분리투쟁이 본격화했다. 2000년대 들어와 평화의 기운이 감돌지만 간헐적 충돌이 계속돼 민다나오는 그 지역 사람들도 출입을 꺼린다. 누구에게도 가기 쉽지 않은 땅이다.

이런 곳을 매달마다 찾는 이가 있다. 필리핀서 의류 회사로 성공한 기업인인 이원주(62) JTS 필리핀 대표다. 한 달에 5일 정도는 민다나오에서 지낸다. 그동안 완공한 학교를 돌며 학용품과 구급약 등을 전하기 위해 소리 소문없이 민다나오를 찾는다. 그가 이 곳에 나타나면 원주민이 두 손 들어 환영하고 길을 안내하며, 반군은 총을 메고 마중 나온다.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간다. 하지만 사실이다. 비결이 무엇일까.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며 그들의 일원이 되어 교육 불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지 원주민들은 그를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민다나오 산악마을과 정글에 그가 세운 학교만 46개다. 물론 혼자한 일은 아니다. 국제후호기구인(사)JTS(Join Together Society=이사장 법륜 스님)의 지원을 받는다. 이 대표는 필리핀지부인 'JTS 민다나오'를 2005년 창립한 뒤 현재까지 대표를 맡으며 자원봉사를 진두 지휘한다. 이 대표는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원주민과 함께 건축자재를 나르며 학교 벽돌을 쌓아 올렸다. 모든 것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나갔다.

이런 그가 공급했다. 잘나가는 회사 대표가 뭐가 부족해 위험한 분쟁지역인 그 먼 곳을 매달 찾는지, 또 재정 후원만이 아니라 휴먼지지를 뒤집어쓰고 직접 학교 짓는 일에 동참하는 지 묻고 싶었다. 그 곳에서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일까 공급했다. 그런 명성을 익히 듣던터라 지난 몇 년간 이 대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몇 번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 내세울 것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간절히 원해서였을까 그런 그를 4월 27일 서울서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 전날 구미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정도회 1천일 결사 행사에 참석차 귀국한 것이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 대표는 정토행자가 된 배경부터 말머리를 풀었다.

“본격적으로 정토행자가 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필리핀에 오신 법륜 스님을 만나면서 민다나오 봉사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 정토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요. 물론 개인 신생활은 그 이전인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명상과 108배를 했지요. 출장 갈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매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엔 출장가서도 꼭 했는데 룸메이트가 있을때에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나 좋다고 남에게

불편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어 이 대표는 10여년 이상 수행을 해보니 상대를 이해하는 쪽이 많이 넓어지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고 피력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남의 말을 잘 들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내성적이면서도 급하고 고집이 썩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면 화도 많이 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만 옳다는 아만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수행하며 알게 됐습니다. 상생과 중용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후에 갈등이 심했던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았을 때도 이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10년 필리핀 한인회는 회장 선거로 분열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때 평소 이 대표의 봉사정신과 인품을 눈여겨 본 원로들과 교민회 간부들이 한인회를 화합으로 이끌 책임자라며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이다.

민다나오섬에 평화의 전령사

10여년간 학교 46곳 건립... 반군도 반겨

한달에 5일 생활, 학용품 및 약품 보시

2008년부터 전통마을을 보존 사업도

필리핀서 성공 일군 '제2의 인생'

의류회사 30년 운영... 연매출 3천만달러

두 번의 큰 위기 성실과 신뢰로 극복

2010년 한인연합회장 선출...갈등 봉합

“한인총연합회가 생긴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인회 안에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컸지요. 총연합회가 지역한인회를 위해 해준 게 뭐 있느냐며 불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회장에 선출되자마자 2011년부터 봉사하는 마음으로 5개 지역 한인회를 모두 순회했습니다. 발로 뛰며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모두 가니가 나중에는 경계심을 풀더군요. 또한 제가 한인회장에 나설때 일부 기독교 신도들의 반대가 있었지요. 불교신자가 한인 회장을 한 것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선교사들이 저의 회장직 수행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히려 다른 종교 행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가니가 나중에는 경계심을 풀더군요. (웃음) 무슨 종교든 남을 존중하면서 내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업(?)인 민다나오 봉사 얘기로 다시 화제를 돌렸다. JTS가 학교를 짓는 곳은 주로 산 속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과 군의 경계로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할 수 없이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나 좋다고 남에게

나 재정이 빈약한 필리핀 정부에서는 소수를 위해 지원할 여력이 없다.

“저희들이 2003년 처음 학교 짓는 일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법륜 스님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을 당시 심사위원장이 안토니오 대주교가 남북이 대치하는 한국서 대북 사업을 활발히 하신 법륜 스님의 노후를 필리핀 분쟁지역에도 펼칠 수 없겠냐고 요청해서 시작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문맹 퇴치가 급선무라는 것을 깨닫고 학교 건립에 팔을 걷어 부쳐셨습니다. 처음에는 JTS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니까 지역민들이 부정적이었지요. 다른 NGO단체들이 처음에는 돕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도움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외부인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진심을 알렸더니 조금씩 문을 열어주요. 처음 시작한 곳은 달라자칸 지역이었지요.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 학생들이 대충 나무를 잘라 만들어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가건물을 새로 짓고 화장실도 만들어주었지요. 지금도 교실이 생겨 너무 좋아하는 맑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곳은 가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인 지역이었다.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차부터는 가톨릭과 원주민이 섞여 사는 지역, 그 이후는 원주민과 무슬림이 사는 지역 등 범위를 점점 넓혀 가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정말 어려운 곳만을 찾아갔다. 학교 말고도 병원, 보건소 등은 물론 2008년부터는 전통마을보존사업도 하고 있다.

“전통마을보존사업을 실시한 팔랑디 부족은 전통적인 고유 문화를 제일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악기, 춤, 스펀타넨타라고 돌이나 흙에서 채석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전통문화, 전통 민간요법 등등. 또 자기들만의 말과 글도 있더군요.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본부에 보고 하니 법륜 스님께서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으로 뽑았는데, 처음에는 부족장이 만나주실 않았어요. 무작정 만나줄때까지 기다렸지요. 간신히 만나 JTS 취지를 소개 하면서 설득을 했지요. 우선 마을에 있던 문화센터 수리부터 하자는 결론을 냈어요. 건물이 대충지어져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었거든요. 이왕 해줄 거 제대로 해주자고 마음먹고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려면 친해지는 것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 갔어요. 한번 가면 보통 4박 5일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노력했죠. 그랬더니 결국 마음을 열더군요. 그동안 흘린 땀은 보람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 오더군요.”

민다나오가 분쟁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대표는 인간 사는 곳은 모두 마찬가지라 진심을 보이면 그들도 마음을 연다고 답했다. “학교 지을 곳을 찾다가 정글서 한번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찾아 헤매는데 무더위에 물도 떨어지고 이리다 정말 산 속에서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질무렵 나무 위서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거예요. 말도 안하고 손짓으로 따라오라해서 가니까 10여 명이 박격포와 총을 들고 옵니다. 그러곤 “Welcome(대환영)”이라며 반갑게 맞더군요. 혹시

대한불교 총화종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종정 전남정

부 종 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해각

총회회장 백만우 총회부회장 정경웅 교육원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해암 문화원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김지오 교무부장 윤해원 감찰부장 김정산
조사부장 김지현 교육지도부장 김성담 문화부장 양해원 문화관리부장 손지원

서울북중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중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중무원장 김해암
대전중무원장 김해승 울산중무원장 백만우 강원교구중무원장 정혜산 강원2교구중무원장 허승호

경남동중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중무원장 김월광 경남중중무원장 이도연 부산중무원장 박지광
전남,광주중무원장 김현산 제주 중무원장 김청해

유발승 회장 이지수 유발승 총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축사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것입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화합과 평화를 위해 부처님을 맞이합시다.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자비광명이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불자 가정 가정마다 부처님 불은(佛恩)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중생 모두는 본래 부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해각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